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271>

JCCT 2024-1-32

# 대학생 진로인식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대학 진로교육 개선 방안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reer Education Based on Analysis of Awareness and the Program of Undergraduate's Career Education

조지현\*, 이동엽\*\*

Ji Hyeon Jo\*, Dong Yub Lee\*\*

**요약** 본 연구는 대학의 진로교육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생의 진로인식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진로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G대학 재학생 1,3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취업인식조사에서 진로교육관련 결과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학년 및 계열에 따라 학생의 진로인식은 교차분석을, 진로교육프로그램 선호도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진로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개인의 진로준비 정도에 맞는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진로교육, 진로인식, 진로교육프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olicies and current status of career education at universities and to compile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career education through an analysis of undergraduate's career awareness and career education programs. The data was collected by restructuring career education-related items from a career awareness survey conducted on 1,322 enrolled students at G University. Analyzing students' career awareness based on their year and major, a cross-analysis was conducted, while the preference for career education programs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proposal was made to strengthen career exploration programs through self-understanding, expedite the timing of career decision-making, and highligh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career education programs tailored to individual career readiness levels.

**Key words** : career education, career awareness, career education programs

### 1. 서론

대학 취업률은 단순한 수치의 의미를 넘어 대학을 평가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대학 취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회원,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본 논문은 조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20, 2023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leetech@gnu.ac.kr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 Korea

업률은 청년 실업과 직결되어 사회적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 교육의 효과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고등교육 체제의 인적자원개발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요구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충분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성적이나 대학평판, 가족이나 지인 또는 교사의 권유로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의 흥미, 적성 등 자기 이해가 충분히 되지 못한 채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게 되어 대학 입학 후 학교부적응, 학습부진, 진로고민 등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대학의 진로교육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흥미, 적성, 능력 등을 반영한 진로탐색 과 직업선택이 진로준비와 취업 지원에 아주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대학 진로교육현황조사에서 대학의 학생진로 및 취·창업지원 및 운영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로 학생의 진로 및 취·창업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저조(대학교 34.0%, 전문대학 39.2%)를 선택했다. 학생조사에서 진로인식분야에서 진로교육 경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은 없음에 응답한 비율(50%이상)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이 대학생들의 인식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로교과와 진로서비스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진로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진로교과 개설뿐만 아니라 진로서비스를 운영하여 대학생 진로설계와 취업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로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취업중심에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중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저학년들이 진로교육의 중요성, 진로교육 설계 방법 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취업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1]

대학의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진로교육 정책 및 대학교육에서의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에 위치한 G대학의

재학생 진로인식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선호도를 살펴보고 학생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진로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인식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선호도를 분석하여 대학 진로교육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생의 학년, 전공계열에 따른 전공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대학생의 학년,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설정 및 계획은 어떠한가?
- 셋째,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선호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 진로교육 정책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진로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와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체계적인 진로교육 평가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는 부분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국가수준에서 수립하였다는 점과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진로교육 수요자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2].

국가 진로교육 정책을 시기에 따른 진로활동, 인프라, 대상별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세 영역 중에서 진로활동 영역과 관련하여 진로교육 과정 및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는 다양하게 확대, 개별화되었으며 진로체험은 늘어나 사회의 변화들을 반영하면서 고도화 되었다. 전생애 관점의 진로교육의 계열화 및 차별화의 필요성, 기술 변화를 고려한 진로활동의 다양화, 그리고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대학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학의 진로교육 정규 교육과정화 유도, 대학 진로체험 및 현장실습 강화 등이 있다[3].

교육부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자체적으로 특성을 살린 정책을 수립하도록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자체적으로 대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센터를 설립 후, 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교육부의 진로교육정책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의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2. 대학 진로교육 현황

대학의 진로교육은 2000년 초반부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진로교육은 취업진로 프로그램과 대학 입학 초에 진행되는 교과로서의 진로교육으로 구분된다. 주로 비교과 활동으로 운영되었지만 최근에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는 추세이다[4].

4년제 대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진로교육전담 기구 현황을 진로교과, 진로서비스, 전담기구 및 교직원 인식 등 보다 세분화된 항목을 조사하였다. 진로교과의 경우 학교의 규모와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수강학생의 규모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진로교과의 60% 이상이 취업 준비 중심의 강좌들로 구성되었고, 진로 중심의 강좌는 30%에 미치지 못해 고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은 취업으로 치중되어 있었다. 특히, 진로교과는 교양 영역으로 되어 학생별 수강 여부에 대한 차이가 컸으며, 전공 영역에 포함될 경우에도 어학, 취업세미나와 같이 교양 영역과 차이가 없이 교과들이 중복 개설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진로교과목 평가는 상대평가가 주로 적용되어 진로교과가 실제적인이기 보다는 지식의 습득으로만 그치는 면이 있었다. 또한, 진로서비스가 진로 교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취업 중심으로 치우쳐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의 명칭을 살펴보면 취업 지원이나 경력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진로보다 취업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매년 해오고 있다. 국가 차원의 현황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진로

취업지원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진로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대학 내외의 정책 수립 및 실행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0년의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살펴보면 대학 진로취업지원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과목은 창업지도 및 지원 교과목 비율이 45.1%로 크게 나타났고, 취업지도 및 지원 교과목이 32.1%, 진로지도 및 상담 교과목이 14.1%로 진로관련 교과목은 차이가 컸다. 대학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에서는 취업지도 및 지원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창업지도 및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은 각각 17.2%, 16.3%로 나타났다. 교과목운영과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진로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 학과 선택 시 고려요인은 적성이 6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였다. 대학생활 인식에 대해서는 학과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5점, 대학 진로교육 만족도는 3.38점으로 나타났다. 진로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50.7%), 보수(37.4%), 안정성(37.2%), 능력 발휘(31.9%) 순이었다.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한 응답은 56.1%가 취업, 19.9%가 시험준비, 그리고 12.5%가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대학 대학생의 진로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지방대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를 촉진할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부의 대학진단 평가결과로 인한 대학 서열화는 지역 대학의 문제점이 지방대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진출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 결과, 지방대학생의 진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노동시장과 이동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

## 3.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재 대학의 진로교과목은 중등교육에서 운영하는 진로탐색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 자기이해와 직업정보 탐색 내용을 줄이고, 직업에 대한 자아개념 이해 및 진로와 관련한 심층정보 탐색 등 변화를 위한 장기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진로교과목과 관련하여 대학의 과목은 중등교육과 연속성을 유지하

면서 동시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직업세계의 이해가 선행되고, 직업분야 진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습득하여 진로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이수와 동반하여 진로비교과 활동에 참여하고, 대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과 학업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6].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 관련 비교과 진로교육 서비스는 진로탐색검사, 진로상담,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취업 캠프, 특강, 취업동아리, 전공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인 G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1학기에 실시한 '2022년 진로취업인식 및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대학의 취업지원부서에서 수요자 맞춤형 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17일간 전체 재학생 14,185명을 대상으로 URL을 발송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550명, 여학생 772명으로 총 1,322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 진로에 대한 인식, 진로설정 및 준비도, 프로그램 참여도조사 등으로 설문문항은 총 27개로 구성되었으며, 진로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되, 일부 운영방식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 2. 설문도구

일반적 특성, 진로인식,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소속대학, 학년으로 구분된 자료로, 소속대학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었다. 다시, 해당 계열에서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을 분리하여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교육계열, 의약계열로 구분하였다.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인식은 재구성된 독립변인으로, G대학 진로·취업인식조사 설문지 문항을 전공에 대한 인식, 진로설정 및 계획, 진로교육프로그램 선호도로 구성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기초정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Ver.2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인식과 진로교육프로그램 요구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결과는 첫째, G대학교의 학생을 학년별, 계열별의 배경정보에 따른 진로의식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학년별, 계열별에 따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information

		단위: 명, %	
변인	항목	응답자수	백분율
성별	남	550	41.6
	여	772	58.4
학년	1학년	282	21.3
	2학년	245	18.5
	3학년	327	24.7
	4학년	468	35.4
계열	교육계열	53	4.0
	의약계열	86	6.5
	인문사회계열	401	30.3
	자연공학계열	782	59.2

#### 1. 대학생의 진로인식

##### 1) 학과(전공)를 선택한 가장 큰 동기

응답자의 32.5%는 적성에 맞아서 선택하였고, 성적에 맞춰서 선택한 경우가 29.4%로 크지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17%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택하면서 졸업 후 취업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다른 응답은 약 10%이내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성, 성적, 취업이 주된 동기가 됨을 알 수 있다. 검정결과면 계열별로는 카이제곱 값이 150.450(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년별에서 보여지는 결과는 전체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계열별에서는 교육계열은 적성에 맞아서 선택한 경우가 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약계열은 근소한 차이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라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인문사회계열은 취업보다는 적성과 성적이 각 30%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공학계열은 성적에 맞춰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학과(전공) 선택 동기  
 Table 2. Reasons for choosing a major

구분		현재 학과(전공)을 선택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기타	부모 권유	사회적 지명도	성적	적성	진로 교사 추천	취업	진척 의 권유	지역 인재 채용	
학년	1학년	12	20	5	76	110	10	39	1	9	
		4.3	7.1	1.8	27.0	39.0	3.5	13.8	0.4	3.2	
	2학년	18	23	3	77	74	3	40	1	6	
		7.3	9.4	1.2	31.4	30.2	1.2	16.3	0.4	2.4	
	3학년	24	24	5	92	104	11	60	0	7	
		7.3	7.3	1.5	28.1	31.8	3.4	18.3	0.0	2.1	
	4학년	18	37	13	144	142	20	86	0	8	
		3.8	7.9	2.8	30.8	30.3	4.3	18.4	0.0	1.7	
	유의도 (p값)		$\chi^2=28.528 (0.238)$								
	계열	교육	1	2	1	5	41	1	2	0	0
계열		1.9	3.8	1.9	9.4	77.4	1.9	3.8	0.0	0.0	
의약		3	7	7	12	28	0	29	0	0	
계열		3.5	8.1	8.1	14.0	32.6	0.0	33.7	0.0	0.0	
인문사		26	22	7	124	161	13	33	0	15	
회계열		6.5	5.5	1.7	30.9	40.1	3.2	8.2	0.0	3.7	
자연공		42	73	11	248	200	30	161	2	15	
학계열	5.4	9.3	1.4	31.7	25.6	3.8	20.6	0.3	1.9		
유의도 (p값)		$\chi^2=150.450 (0.000)***$									
전체	72	104	26	389	430	44	225	2	30		
	5.4	7.9	2.0	29.4	32.5	3.3	17.0	0.2	2.3		

\*p<0.1 \*\*p<0.05 \*\*\*p<0.001

2) 현재 학과(전공)의 취업에 대한 유용여부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학과(전공)에 대한 유용함에 대하여 유용하다가 38.1%, 매우 유용하다가 20.0%로 50% 이상이다. 하지만 유용하다 다음으로 보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32.1%로 적지 않게 차지하고 있다. 검정결과는 계열별 카이제곱 값은 266.692(p=0.00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 학과의 취업유용정도  
 Table 3. Employability of a major

구분		현재 전공(학과)은 졸업 후 취업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전혀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지 않다	보통	유용하다	매우 유용하다	
학년	1학년	8	18	81	104	71	
		2.8	6.4	28.7	36.9	25.2	
	2학년	6	14	75	102	48	
		2.4	5.7	30.6	41.6	19.6	
	3학년	8	22	111	138	48	
		2.4	6.7	33.9	42.2	14.7	
	4학년	10	42	158	160	98	
		2.1	9.0	33.8	34.2	20.9	
	유의도 (p값)		$\chi^2=18.250 (0.108)$				
	계열	교육	1	4	16	19	13
계열		1.9%	7.5%	30.2%	35.8%	24.5%	
의약		0	1	3	14	68	
계열		0.0%	1.2%	3.5%	16.3%	79.1%	
인문사		23	52	147	139	40	
회계열		5.7%	13.0%	36.7%	34.7%	10.0%	
자연공		8	39	259	332	144	
학계열	1.0%	5.0%	33.1%	42.5%	18.4%		
유의도 (p값)		$\chi^2=266.692 (0.000)***$					
전체	32	96	425	504	265		
	2.4	7.3	32.1	38.1	20.0		

\*p<0.1 \*\*p<0.05 \*\*\*p<0.001

3) 전공 변경 의향

자신의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할 의향에 대해서는 68.5%가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없이 30%대로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검정결과 계열별로는 카이제곱 값이 28.634(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전공선택이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의약계열 90.7%, 교육계열은 77.4%로 높았으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은 전공변경할 의향이 각각 37.7%, 31.3%로 나타났다. 전공 변경에 대한 생각은 계열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전공 변경 의향  
 Table 4. Intention to change major

구분		본인의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
학년	1학년	191	91
		67.7	32.3
	2학년	162	83
		66.1	33.9
	3학년	227	100

		69.4	30.6
4학년		326	142
		69.7	30.3
	유의도(p값)	$\chi^2=1.138(0.768)$	
계열	교육계열	41	12
		77.4	22.6
	의약계열	78	8
		90.7	9.3
	인문사회계열	250	151
		62.3	37.7%
	자연공학계열	537	245
	68.7	31.3	
	유의도(p값)	$\chi^2=28.634(0.000)***$	
전체		906	416
		68.5%	31.5%

\*p<0.1 \*\*p<0.05 \*\*\*p<0.001

## 2. 진로설정 및 계획

### 1) 진로설정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면서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면서 진로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진다. 진로를 설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안정성, 워라벨, 자기계발 등 10가지 중 흥미가 28.9%를 가장 많이 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능력발휘가 19.7%, 보수가 16.2%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교육계열은 흥미 45.3% 다음으로 능력발휘가 28.3%로 높았으며 나머지 요소들에서는 10% 이내의 분포를 보인다. 교육계열과 비슷한 전문직으로 진로설정을 하는 의약계는 흥미 26.7%, 보수 15.1%, 워라벨 12.8% 순서로 나타났으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은 흥미, 능력발휘, 보수, 안정성, 워라벨 등 30%-10%대로 다양하게 분포했다. 검정결과는 계열에서 카이제곱 값이 63.502(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5. 진로설정 요소  
Table 5. Career factors

		문 4. 진로(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위: 명, %									
구분		능력 발휘	보수	사회 봉사	사회 적 인정	안정 성	워라 벨	자기 계발	자율 성	창의 성	흥미
학년	1학년	54	46	5	5	28	32	12	5	1	94
		19.1	16.3	1.8	1.8	9.9	11.3	4.3	1.8	0.4	33.3
	2학년	42	44	3	2	28	22	17	6	3	78
		17.1	18.0	1.2	0.8	11.4	9.0	6.9	2.4	1.2	31.8
	3학년	66	54	6	4	31	49	16	4	1	96
		20.2	16.5	1.8	1.2	9.5	15.0	4.9	1.2	0.3	29.4
4학년	98	70	11	9	50	60	39	13	4	114	
	20.9	15.0	2.4	1.9	10.7	12.8	8.3	2.8	0.9	24.4	
	유의도(p값)	$\chi^2=26.915(0.468)$									
계열	교육	15	2	1	0	3	5	3	0	0	24

	계열	28.3	3.8	1.9	0.0	5.7	9.4	5.7	0.0	0.0	45.3
의약계열		9	13	7	6	8	11	6	3	0	23
		10.5	15.1	8.1	7.0	9.3	12.8	7.0	3.5	0.0	26.7
인문사회계열	81	58	8	5	45	47	25	10	4	118	
자연공학계열	20.2	14.5	2.0	1.2	11.2	11.7	6.2	2.5	1.0	29.4	
학계열	19.8	18.0	1.2	1.2	10.4	12.8	6.4	1.9	0.6	27.7	
	유의도(p값)	$\chi^2=63.502(0.000)***$									
전체		260	214	25	20	137	163	84	28	9	382
		19.7	16.2	1.9	1.5	10.4	12.3	6.4	2.1	0.7	28.9

\*p<0.1 \*\*p<0.05 \*\*\*p<0.001

### 2) 진로설정 적정시기

진로설정 적정시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년은 무관하다는 응답이 47.7%로 많았고, 다음으로 3학년, 2학년, 4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검정결과에서 계열별은 카이제곱 값이 34.025(p=0.001), 학년별은 35.174(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6. 진로설정 적정시기  
Table 6. Timing for Career Planning

		문 5. 진로(직업)을 명확히 설정하는 적정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단위: 명, %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은 무관
학년	1학년	19	51	61	11	140
		6.7	18.1	21.6	3.9	49.6
	2학년	7	36	85	10	107
		2.9	14.7	34.7	4.1	43.7
	3학년	5	42	96	29	155
		1.5	12.8	29.4	8.9	47.4
4학년	15	56	139	29	229	
	3.2	12.0	29.7	6.2	48.9	
	유의도(p값)	$\chi^2=35.174(0.000)***$				
계열	교육계열	5	7	9	1	31
		9.4	13.2	17.0	1.9	58.5
	의약계열	1	9	14	3	59
		1.2	10.5	16.3	3.5	68.6
	인문사회계열	19	55	110	26	191
		4.7	13.7	27.4	6.5	47.6
자연공학계열	21	114	248	49	350	
	2.7	14.6	31.7	6.3	44.8	
	유의도(p값)	$\chi^2=34.025(0.001)**$				
전체		46	185	381	79	631
		3.5	14.0	28.8	6.0	47.7

\*p<0.1 \*\*p<0.05 \*\*\*p<0.001

### 3)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응답자의 57%는 취업을 생각하고 있으며, 시험준비를 하고자 하는 비율이 17.9%로 많았다. 계획이 없는 비율도 8.8%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7.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Table 7. Plan after graduation

단위: 명, %

구분		문 9. 대학 졸업 후 계획하고 있는 진로가 있습니까?								
		(학사) 편입	계획 없음	기타	대학원 진학	시험 준비	창업	취업	취업 완료	
학년	1학년	0	3	1	0	33	1	15	0	
		0.0	5.7	1.9	0.0	62.3	1.9	28.3	0.0	
	2학년	1	6	0	6	4	5	62	2	
		1.2	7.0	0.0	7.0	4.7	5.8	72.1	2.3	
	3학년	5	35	4	28	102	15	208	4	
		1.2	8.7	1.0	7.0	25.4	3.7	51.9	1.0	
	4학년	7	72	3	85	97	36	469	13	
		0.9	9.2	0.4	10.9	12.4	4.6	60.0	1.7	
	유의도 (p값)		$\chi^2=126.296(0.000)***$							
	계열	교육	1	30	0	30	54	13	149	5
계열		0.4	10.6	0.0	10.6	19.1	4.6	52.8	1.8	
의약		6	29	0	20	36	12	140	2	
계열		2.4	11.8	0.0	8.2	14.7	4.9	57.1	0.8	
인문사		4	31	4	24	53	12	196	3	
회계열		1.2	9.5	1.2	7.3	16.2	3.7	59.9	0.9	
자연공		2	26	4	45	93	20	269	9	
학계열		0.4	5.6	0.9	9.6	19.9	4.3	57.5	1.9	
유의도 (p값)		$\chi^2=32.960(0.047)**$								
전체	13	116	8	119	236	57	754	19		
	1.0	8.8	0.6	9.0	17.9	4.3	57.0	1.4		

\*p<0.1 \*\*p<0.05 \*\*\*p<0.001

3. 진로교육프로그램 참여선호도 분석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희망 조사를 하였다. 10개 영역 36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강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8. 진로교육 프로그램  
 Table 8. Career Education Programs

단위: 명

영역 (66종)	전체	학년				계열			
		1	2	3	4	교육	의약	인문사회	자연공학
상담	713	177	132	173	231	35	36	225	417
	581	115	104	145	217	26	33	178	344
	460	96	91	126	147	21	16	140	283
	422	101	85	114	122	18	33	109	262
교과목	343	76	66	85	116	11	14	97	221
정보제공	801	173	144	193	291	36	62	230	473
	818	173	140	203	302	35	66	234	483
	892	201	164	213	314	38	70	259	525
	920	205	170	220	325	40	67	271	542

추천	890	191	164	221	314	41	66	261	522
채용 설명회	895	211	157	221	306	41	71	279	504
	884	206	163	214	301	40	70	261	513
	991	219	182	246	344	43	73	311	564
	1060	228	197	258	377	44	76	326	614
역량 강화 프로 그램	953	186	168	242	357	41	50	305	557
	940	183	167	239	351	41	48	299	552
	1024	201	184	259	380	42	53	323	606
	888	176	167	217	328	31	46	273	538
	919	187	163	230	339	35	50	290	544
	926	181	173	234	338	39	59	285	543
	1007	209	183	248	367	39	70	320	578
	991	205	181	242	363	39	68	315	569
	1011	207	190	252	362	41	73	311	586
	직무 자격 과정	1028	213	187	255	373	40	71	328
1057		213	192	263	389	43	56	329	629
1038		226	186	255	371	40	77	327	594
NCS	941	200	182	234	325	40	74	285	542
	970	209	184	239	338	42	76	295	557
	985	208	190	239	348	41	76	302	566
해외취 업지원	928	192	173	226	337	39	65	280	544
	1021	210	193	256	362	42	67	309	603
	1028	218	184	254	372	40	71	316	601
학과 맞춤	969	210	182	228	349	40	70	312	547
	929	189	173	230	337	31	62	299	537
	906	201	161	214	330	40	70	284	512
	933	198	170	223	342	42	72	286	533
평균	890.6	188.7	163.7	219.8	318.5	37.1	60.5	273.7	519.3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 역량강화영역, 직무자격과정 영역, 해외취업영역이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상담영역이 저조했다. 계열에 따른 결과는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은 모두 채용설명회영역, 직무자격영역에 선호도가 높았으며, 다른 계열과 달리 학과맞춤영역을 선호했다.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은 공통적으로 역량강화와 직무자격영역을 선호했으며, 해외취업영역에서 교육계열과 의약계열보다 선호도가 뚜렷했다.

학년에 따른 결과는 1학년은 정보제공영역과 채용설명회영역을 선호도가 다른 학년에 비해 뚜렷했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며 다양한 정보와 직무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영역에 관심이 높았다. 2학년과 3학년은 역량강화영역, 직무자격영역, NCS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3학년은 해외취업영역에도 관심이 높았다. 4학년은 상담과 정보제공을 제외한 모든 영

역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 V.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의 적성, 흥미에 대해 이해하고, 전공과 관련한 직무를 알아볼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계열의 경우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높았던 결과를 고려할 때 입학 이후 전공의 특징이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전공 부응 및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7]. 따라서 전공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계열에 따라 매우 유용하다는 답변에서 의약계열(79.1%)과 인문사회계열(10.0%)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열은 전공업무 일치도와 짧은 일자리 유지로 인해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편이다[8]. 전공과 업무 간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며, 노동시장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9].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문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와 학과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은 진로 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진로탐색검사와 진로상담을 필수화하고, 전공과 관련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대학에서 기업탐방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전공의 특징과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진로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진로결정 시기가 대부분 3-4학년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취업준비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로설정의 시작이 빠를수록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10]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설정 적정 시기에 대해 학년은 무관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학년을 적정 시기라고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진로설정 시기가 비교적 늦은 편으로 볼 수 있어, 전공이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자격과정이나 인턴십 등 역량강화영역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진로설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개인적인 진로준비 정도에 맞춰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선호도를 살펴보면 학년, 계열에 상관없이 역량강화영역, 직무자격과정영역, 해외취업영역이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다.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상담영역이 저조하였다. 개인 준비도 검사, 해석상담, 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개인 맞춤형 과정을 지원하는 상담영역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하여 충분한 진로탐색 없이 취업준비에 임하게 될 수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11] 기존의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년에 따라 구성하고 제공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학년은 학생의 진로준비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고학년이라도 진로 준비 정도가 낮은 학생은 취업 준비가 늦어지고 취업 준비 활동이 정체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준비 정도가 낮은 학생에게는 개인적인 진로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및 해석을 도와주는 1:1 컨설팅 상담을 통해, 준비도가 높은 학생에게는 실천을 높일 수 있는 현장실습, 인턴십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의 취업 준비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열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이전까지 실시한 G대학의 진로인식조사의 결과는 학년별, 계열별로 구별하여 분석하지 않고 전체적인 수치에 의존하여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학생의 소속 계열에 따라서 졸업 후 희망 진로 및 진로 관련 수업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전공과 관련한 직무를 실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진로결정이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동기화가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의식이 확고해져야 한다[12].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맞는 활용 수단으로 자격과정을 이수하여 실질적으로 진로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Junghee Kim, Ilhwan Chung, Jinchul Jeong, Dongbeom Ju, Hyunmin Lee, "A Study on Analysis of Four-year University Career Education Program and Organiz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4, pp. 1-28, 2016.
- [2] Ji-Yeon Lee, "Career education policies and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preparednes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HRD Review*, Vol. 20, No. 5, pp.20-38, 2017.
- [3] Chyul young Jyung, Yeong gwang Lee, Dong joo Kim, Gi min Kim, Jin gyu Yi, Seung yeop Lee, Do hyun Kim, "National Career Education Policy Trends in Korea",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5, No. 1, pp. 81-109, 2022.
- [4] Jeong Eun Lee, Kim, hyun soo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Needs for Career Educa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Issue 4, pp. 1001-1027, 2016.
- [5] Ji-Ae Jeong, Je-Kyung lee, "Domestic Research Trends on Career Problems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8, No. 2, pp. 47-74, June 2018.
- [6] Jeong Eun Lee, Kim, hyun soo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Needs for Career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4, pp. 1001-1027, 2016.
- [7] Ha, Hye-Suk,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0.
- [8] Jung Kiduck, Cho Minhyo "A Study on the Effect of Working Experience while in College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Focused on the Wage and Job Mismatch",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27, No.2, pp. 237-259, 2016.
- [9] Jahyeong Lee, Bora Youn,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by College Majors:Comparing Graduates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ith i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2, No. 4, pp.199-226, 2012.
- [10] Lee-Sung Goo, Lee-Je Kyoung,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1, No.3, pp. 1-25, 2008.
- [11] Eunae Kim, Sungmi Jin, "Study of Experiences during Career Explo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Grounded Theor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4, No.3, pp. 67-90, 2015.
- [12] Dong-Hee Yoo, "Study on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career education in univers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2008.